

갤러리 엠나인, 새 전시 'M9 Collection: 슬기로운 컬렉터 입문전' 선봬  
이달 말까지 진행



갤러리 엠나인 'M9 Collection: 슬기로운 컬렉터 입문전' 전시 전경 <갤러리 엠나인 제공>

갤러리 엠나인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 'M9 Collection: 슬기로운 컬렉터 입문전'을 진행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개관전에 이어 갤러리 엠나인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로, 다시 성장하고 있는 미술 시장과 신진 컬렉터들의 취향을 고려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국내 작가들을 비롯해 개성 넘치는 해외 작가의 작품까지 총 13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먼저 국내 작가들의 작품 라인업이 다양하다. 후기 단색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태호 작가, 현 국내 미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태임 작가를 비롯해,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전시를 이어가는 박승순 작가, 사과 그림의 장인 민경숙 작가 등 국내 작가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이자 갤러리 엠나인 전속 작가 한지희의 작품들도 소개된다.

해외 작가로는 역원근법을 이용해 초현실주의적인 작업을 이어가는 패트릭 휴즈의 'Venice'를 비롯하여, 컷아웃(cutout) 기법으로 작품 속에서 살아 있는 생동감을 보여주는 데이비드 걸스타인의 작품 등을 선보인다.

갤러리 엠나인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신진 컬렉터들의 진입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다양한 컬렉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존 컬렉터의 취향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경이코노미

[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year=2021&no=941907](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year=2021&no=941907)